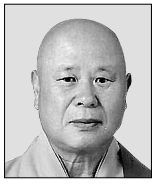


일 주 문



일불문학상 시 부문 수상
대우 정읍 내장사 벽력선원 회주
스님은 구랍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일불문학상 시상식에서 시 부문 상을 수상했다.



베트남 태아 영가 천도제
탄웅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1월 2~3일간 경내에서 '베트남 태아 영가를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다.



2015 국민추천 포상자 선정
학명 하남 성불사 주지 스님은
구랍 24일 '2015년 국민추천 포상자'로 선정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인사> BBS불교방송

△BBS추천불교방송 사장 임음 스님

국제선원 무상사 회주 대진당 무심 스님
구랍 30일, 무상사에서 영결식 봉행



세계일화(世界一花) 정신으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린 승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인 계룡산 승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대진당 무심
스님이 구랍 26일 정오 임종했다.
법랍 31세, 세수 57세.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졌으며 영결식은
30일 무상사에서 봉행했다.

무심 스님은 1958년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에서 출생해 1979년 메사추세츠주 보스턴대 화학과 재학 시절 승산 스님을 만나 발심출가했다. 30년 이상 한국에 머무르며, 수덕사·신원사·화계사 등에서 40여 차례 이상 안거에 참여해 수행정진 했다. 서울 화계사 수석 지도법사를 역임하고, 2002년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2013년부터 회주로 주석했다.

광주 판화가 강행복 '길위의 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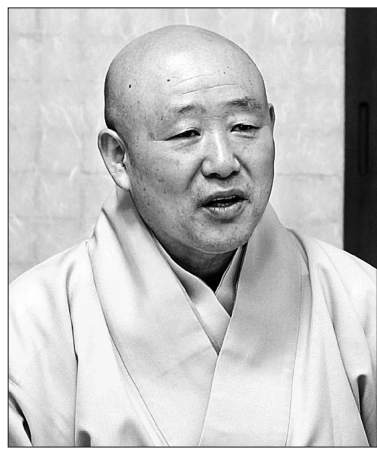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은 1월말까지 상록전시관에서 불교목판화가인 강행복 작가의 '길 위의 길' 판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자신의 기억과 내면에 존재한 조형 이미지들이 분반하게 펼쳐진 형태로, 작품 빛깔나무·바람 부는 발이랑·붉게 물든 산마루 등은 고향 동네에서 간직한 기억을 나타낸다.

특히 <명상>, <명상의 나무>(2015작) 시리즈 등은 지금까지 선보였던 구상적 형상은 사라지고 울동감 있는 선과 단편적 모티프들이 불규칙하게 섞여있다고 광주시립미술관은 밝혔다.

“봉은사, 시민 맞춤형 사찰로 변모”

2016 비전 공개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서울 봉은사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야간개방과 불교전문대학원 운영 등 실행과 문화체험, 휴식과 교육이 함께하는 '시민 맞춤형 사찰'로 변모한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사진)은 구랍 29일 봉은사 대래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 봉은사 비전'을 발표했다.

'2016 봉은사 비전'은 크게 △기도·포교 중심도량 도약 △교육원할 정착 △전통문화, 역사문화 선양 △한국불교 중흥도량으로의 가람정비 △힐링사찰 '빛의 봉은사'로 개방 등 5가지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야간개방이다. 봉은사는 매일 밤 12시까지 시민들에게 사찰을 개방한다. 진여문, 범왕루, 미륵대불, 범종각 등 7개 전각에 조명을 설치한 이른바 '빛의 봉은사'다. 해마다 증가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봉은사를 한번쯤은 가볼만한 아름다운 사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원명 스님은 “봉은사는 한국의 가장 변화가에 위치해 있지만 아름다운 전통건물과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불교를 떠나 모든 사람이 찾아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도 수행 사찰로서의 면모도 일신한다. 새벽, 사시, 저녁기도 등 하루 세 차례 진행됐던 상시기도에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오후 기도를 추가했다. 실행의 기본인 사보정진 수행전통을 되살리는 것이다.

또 관전에서는 수험생 자녀를 위한 성취기도가, 북극보전에서는 발원성취기도 등 봉은사의 각 전각별로 특성화된 기도가 진행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불광보조

지역민 위해 자정까지 야간 개방
관전·북극보전 활용 기도특성화

로 바꾸겠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도 수행 사찰로서의 면모도 일신한다. 새벽, 사시, 저녁기도 등 하루 세 차례 진행됐던 상시기도에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오후 기도를 추가했다. 실행의 기본인 사보정진 수행전통을 되살리는 것이다.

또 관전에서는 수험생 자녀를 위한 성취기도가, 북극보전에서는 발원성취기도 등 봉은사의 각 전각별로 특성화된 기도가 진행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불광보조

일요법회', 신도회 중심의 '봉은법회',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계층법회' 등으로 다양화된다.

또 조계종 인가 기본교육과정인 '기초학당'과 전문교육과정인 '불교대학'을 연계한 통합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기초학당은 1·5·9월 년 3회, 불교대학은 봄·가을 연 2회 등 주·야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불교학과와 신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원명 스님은 “교양대학 수준에서 보다 발전한 전문적인 불교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산대제 등에 맞춰 봉은사의 역사와 관련된 호국불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봉은사 내 가장 오래된 전각인 '판전' (1856년)의 국가문화재 등재도 추진된다. 전통문화체험관 1차 완공도 이뤄진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지상·지하 2층 규모로 건축면적 255평, 연면적 720평으로 가을 경 완공될 예정이다.

원명 스님은 “도시공원법에 묶여 있던 상황이 타개된 후 들어서는 체험관으로 현재 30여 명 규모의 수용인원이 1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불자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봉은사에서 한국전통과 불교문화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불교삼보회 '삼보법사회' 출범

초대회장에 이호영 前 파라미타 회장



한국 최초 재가불교단체인 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박호식)가 구랍 26일 서울 삼보정사에서 '삼보법사회'를 창립했다.

그동안 삼보회는 부설기관 삼보사이버불교대학(학장 정병조)을 운영해왔다. 삼보사이버불교대학은 지난 10월 법사과정 첫 이수자가 21명을 배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초대회장으로 이호영 前 파라미타 회장(사진)이, 감사에는 한기성 전 교육경영직 불자회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호영 삼보법사회장은 “현재 군포교와 병원포교 등 포교 일선에서는 출가자 감소로 인해 원활한 전법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포교 사각지대인 군포 병원은 물론 일반 사찰의 법사 지원 활동을 통해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고, 특히 삼보법사가 직접 포교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전법에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호영 법사회장은 이어 “재가자들이 법사과정을 이수해 현장에서 법회를 진행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삼보회 법사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 54년차 회장에 박태우 씨

구랍 27일 선출, 이·취임법회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제54년차 회장에 김진 박태우(충북대 11학번) 충북지부장(사진)이 선출됐다.

대불련은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54년차 대불련 회장선거를 실시, 단독으로 출마한 박태우 씨를 신입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박태우 신입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범우들과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경험인지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범우들에게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의 대불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53년차 이체는 회장은 이임사에서 “꽃 같은 범우님들과 함께한 1년이 매우 값지고 소중했다”며 “열정을 보여준 범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열정이 개인의 삶과 대불련의 비전에 동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취임식은 △연꽃등 공묘전 시상식 △영상편지 상영 △53년차 회장 이임사 △54년차 회장 취임사 △중앙집행위원 임명 △대불련 지도위원장 인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신흥동주민센터에 쌀 100포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기탁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지원장 해당)은 구랍 24일 목포 신흥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쌀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쌀은 앞서 23일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2015 송년의 밤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에서 모인 기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윤호섭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감사패 수상

서울소년원으로부터 봉사활동 공로 인정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센터장 심연홍)가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로부터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상했다. 구랍 30일 고봉중고등학교는 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에 대해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심연홍 센터장에게는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교정교화센터는 고봉중고등학교서 매주 토요일을 봉행하는 한편, 멘토링 봉사·분기별 템플스테이·여름 가을 수련회 등 실시하며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아름 기자

크리스마스 '쌀 모금' 동참

부산 여여선원, 대한결핵협회 요청에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이)이 크리스마스 쌀 모금에 동참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한다.

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는 구랍 29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여여선원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쌀을 전달했다.

정여이 스님은 “우리나라 기부문화 효시인 크리스마스 쌀 모금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한기롭게 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며 환영했다.

박아름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경,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